

우리당 통합신당 추진 급물살

# 전대준비위 구성 연초 본격 가동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원워크숍에서 통합신당의 대세가 확연히 드러난 데 이어 당의 양대 주축인 김근태(GT) 의장과 정동영(DY) 전 의장이 회동을 통해 '국민의 신당' 추진에 합의할 데 맞춰 원혜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 준비위가 연말까지 구성을 마친 뒤 새해초부터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전대준비위 활동과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중이라도 당내 혁신모임에서 전대준비위에 참여할 의원을 추천해오면 구성이 완료될 수 있다"면서 "소외되는 그룹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대준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연초부터 모임을 갖고 전대의 의제를 정리해서 하나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은 문화상 배기선 유인태 의원 등 중도파 중진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통합신당 추진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중도파 끌어안기에 나선 데 이어 내년 1월초 두 사람

## GT·DY, 중도파 설득 공동대오 과시 당사수와 전대준비위 동수 참여 요구

과 중진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동을 갖고 신당 추진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이 회동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놓고 김 의장과 다소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정 전 의장이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해를 푸는 등 공동대오를 다졌다는 후문이다.

신당과 전병헌 의원의 표현대로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이 '과죽지세'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당 추진에 적극적인 양형일 의원은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의 합의에 대해 "두 사람이 회동을 통해 '국민의 신당' 추진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청와대나 여타 세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일부 친노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전대준비위에서 대화를 더 해봐야겠지만, 정 안되면 합의이혼이라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친노그룹을 비롯한 당 사수와 의원들은 27일 의원워크숍 결의는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이지 '통합신당'이 아니었다고 반발하면서 전대준비위에 혁신파, 중도파, 신당파가 동수로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수와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모임'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동을 갖고 "전대준비위는 전대 성격, 의제, 절차 등 전대 전반에 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대준비위는 '만장일치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대준비위는 혁신파, 중도파, 신당파가 동수로 참여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특정세력 배제 신당론'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누구는 나가라, 빠져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분열적이고 맞지 않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합을 해야 하고 이번 전대도 통합적 의미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만큼 누구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사수파의 전대준비위 동수 구성 요구에 대해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하자는 주장과 동수 참여 요구는 서로 충돌하는 말"이라며 "세력으로는 당내에서 10분의 1도 안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분이 10%인데 33%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하자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당 지도부는 소수파 의견도 비중있게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신당파 강경론자들은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이 합의한 '국민의 신당'이 문구상 여당내 모든 세력을 안고 가는 통합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9일 파주 공동경비구역(USA)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6일 티계한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애도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열차페리 사업'의 유력 거점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도 평택항을 방문, 선적을 앞둔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대선체제' 시동

대선주자-지도부 간담회 필승 결의

한나라당이 29일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간 첫 공식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체제에 돌입한다.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원희룡 의원 등 대선주자 4명과 강제섭 대표 등 최고위원단 9명은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말을 맞아 송년인사 겸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실제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필승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 성격이 강하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 주로 당내 대선후보 경선 전반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정 경쟁과 경선 승부를 통해 남은 1년간 내부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서로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여론의 통합신당 합의 및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한 당의 대응방안과 여당의 내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밖에 최근 당내에서 대선 조 기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당 지도부가 대선주

자들에게 상호 흡입대기나 줄 세우기를 피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대선주자들과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한나라당은 사실상 당 운영을 대선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도로 교육, 부동산, 복지, 안보 등 내년 대선을 위한 당 차원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초에는 대북 강경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반핵평화운동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새해초부터는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직능단체들과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정권교체 대세론'을 조기에 굳힌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주로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았지만 경선제도 개편 등 무거운 주제로 자연스럽게 거론됐다"이라며 "지난 9월 말 강 대표가 제안한 '지도부-대선주자 당무협의체'의 출범을 위한 일종의 준비모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드시 관철"

김근태 의장 "정부와 협의 하겠지만 양보할 수 없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9일 민간아파트에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는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단 정부와 협의하되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제도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에게 (분양원가 공개를) 한두번 약속한 게 아닌데 정부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정부가 지켜간다는 신뢰, 여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미경 우리당 부동산특별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원가공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시정에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관계자들은)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신뢰성을 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을 정부가 지켜간다는 신뢰, 여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근태-정동영 연대 특이냐 실이냐

고 건축, "신당 창당 가속" "주도권 상실" 엇갈려

정계개편 추진작업에 뛰어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신당추진을 위해 손을 잡은 데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당 내 양대계파의 수장인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의 연대가 향후 정계개편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단 고 전 총리 캠프는 두 사람의 연대가 우리당 내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측은 29일 "두 사람의 연대는 중도심층 개혁세력의 연대를 위해 국민통합신당을 창당

하지는 고건 총리의 주장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고 전 총리의 행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개편을 향한 우리당의 발걸음이 빨라짐으로써 내년 3~4월에 '국민통합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고 전 총리의 계획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캠프 일각에선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의 연대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양대계파 보스인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의 협력은 우리당의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결국 원탁회의 구성 등 고건 총리가 주도하는 국민통합신당 작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당 내 '고 건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이 왜 정계개편 작업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칫하면 '도로우리당'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두 분은 빠져 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신당 논의의 주도권이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양대계파로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캠프의 한 인사는 "양대계파 중심으로 정계개편 논의가 진행될 경우 당내 친 고건파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리당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학년도(정시1차, 2차)

# 광주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학제	학과	입학정원	정시1차			정시2차		
			일반	특별	합계	일반	특별	합계
2년제	식품영양학과	80	9	13	22	16	2	18
	식품생명과학과	40	7	13	20	7	1	8
	환경의학과	50	16	8	24	10	1	11
	보건행정학과	100	7	7	14	20	3	23
	사회복지학과	100	4	15	19	20	2	22
	사회복지학과(이)	50	16	10	26	10	1	11
	피부미용학과	160	3	2	5	32	2	34
	피부미용학과(이)	50	21	10	31	10	1	11
	의료통계학과	50	13	10	23	10	1	11
	평생직업학과	50	2	8	10	10	1	11
	의안정보학과	50	16	8	24	10	1	11
	관광영어과	50	16	11	27	10	1	11
관광일본어과	50	14	8	22	10	1	11	
관광중국어과	50	27	11	38	10	1	11	
3년제	임상병리과	80	40		40	15	8	23
	치위생과	120	60		60	19	12	31
	물리치료과	120	60		60	8	12	20
	방사선과	100	50		50	17	10	27
	간호과	80	40		40	6	8	14
	치기공과	80	40		40	6	8	14
	안경광학과	64	32		32	11	6	17
	응급구조과	64	11		11	11	4	15
	응급교육과	64	18		18	6	2	8
	계	1,702	515	114	629	285	88	373

- ※ 치위생과는 여학생에 한합니다.
- ※ 모집인원은 모집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식품생명과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사업중 협약학과로 선정되어 모집하지 않습니다.

### ■전형일정

모집시기	원서접수기간	원서접수장소
정시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대학졸업(예정)자 정원외특별전형	2006. 12. 26(화) - 2007. 1. 5(금) 18:00
정시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07. 1. 15(월) - 2. 2(금) 18:00

- ※ 입학원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광주보건대학 또는 www.kjhc.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인터넷접수
  - 마감일은 접수 마감 1일전 18:00까지로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인터넷접수 마감 1일후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전형료는 소액현금으로 동봉하여야 합니다.
  - 수험번호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광주보건대학 또는 www.kjhc.ac.kr)를 참조 하십시오.

광주보건에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

(506-701) 광주광역시 광신구 신창동 683-3  
TEL : (062)958-7511 ~ 4 FAX : (062)958-7515 www.kjhc.ac.kr